

“무주 100년 이끌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WE 스테이션 조성 탄력

황인홍 군수, 전북포럼서 ‘무주군의 미래를 여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도약’ 발제 나서

무주군이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가 이날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전북포럼에서 ‘무주군의 미래를 여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도약’을 주제로 발제를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 방위산업의 육성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군수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전망과 국내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우주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새형 산악지형과 친환경 입지, 우수한 접근성 등 무주가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설명했다.

무주군은 지난 3월 현대토탈(주), 전북특별자치도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황 군수는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0억 원과 항공우주산업 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전권 연구개발 클러스터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4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전북포럼에서 ‘무주군의 미래를 여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도약’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와 연계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 국가 연구기관과의 접근성을 활용해 연구개발과 생산이 연계되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항공우주산업은 무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새로운 생

장동력이자 지역 도약의 기회”라며

“행정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정부가 인정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기업 투자유치와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주에서 우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진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2026년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최한 댐 자원 사업 지자체 신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K-water 지원사업을 연계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진안 스마트 WE(Water & Energy) 스테이션 조성사업’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숙박·체류·생활서비스와 스마트 모빌리티를 결합한 생활복합 거점을 조성하고, DRT(수요응답형 교통), 전기자·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생활교통과 관광객 이동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해 지역 소비를 확대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은 K-water와 민간 전문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로 추진되며, 공모 준비 과정에는 (주)인터뷰, (주)퓨이, (주)마커스 등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의 향서를 제출하고 사업기획에 참여하였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에게는 더욱 편리한 생활교통 서비스를, 관광객에게는 체류와 이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스마트 WE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학생 장수사랑 사회공헌사업단’ 본격 운영

장수군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이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대학생 장수사랑 사회공헌사업단’의 출범을 알리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자책 기준을 거쳐 선발된 장수군 출신 대학생 25명이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전공 연계 프로젝트 △지역사회 연구 및 사회조사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소년과 바람직한 활동 방식’ 특



강으로 시작했다.

이어 동촌리 교분군과 장수역사전시장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애乡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단은 다음달 18일까지 총 20일간 각 분야에서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주민 참여연구단 출범… 2050 미래비전 수립 본격화

무주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주민 참여연구단을 출범시키고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출범한 주민 참여연구단은 40여 명의 군민으로 구성됐으며, 도시·교통·환경·안전, 농축수산·산업·경제, 문화·관광·스포츠, 보건·복지·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단은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 발전 비전 제시와 분야별 미래사업 발굴,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지난 7월 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참여연구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무주형 기본사회와 항공우주, 농축산, 관광, 도시교통 등 5대 분야 20대 전략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전기화재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정지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냉방기기의 장시간 가동과 급격한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선은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손상된 곳이 없는지 가동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멀티탭이 아닌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실외기는 통풍이 원활한 곳에 설치하고 내·외부 먼지를 충분히 제거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의 주요 원인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어야 한다. 장마철 습기와 먼지가 결합해 발생하는 합선 사고를 막기 위해 콘센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소방서, 마이산 물놀이 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

진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리는 ‘마이산 물놀이’ 행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사 기간 많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요 내용으로 행사장 사전 소방안전점검, 행사장 내 매점 및 푸드트럭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오후 2회 현장순찰 실시하여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